

黃順元과 金承鉦의 文体研究

——統語論的 측면에서 본 試圖——

金 亭 子

I. 序 論

II. 本 論

1. 修飾의 樣相

1) 길이 측정

2) 有無判別

3) 偏在測定

2. 작품의 分析

① 대상문

② 分 析

III. 結 論

I. 序 論

統語形式을 正確하게 記述하고, 文藝作品의 全体的 印象에 그것이 어떻게 공헌하는가를 보다 상세하게 公式化함은 文体理論을 確立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이러한 理論은 나아가서 言語形式이 어떻게 思考方式을 反映하게 되는가를 正確하게 理解하는 데 필요한 基礎準備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초준비를 위해 단어의 나열을 형태론적 각도에서만 본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이것을 統語論의으로 擴散시키고 深層構造로까지 深化시켜 본다면 意味論의 입장에서 보는 작자의 특성이 究明되고 文體의 특징이 입체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작자의 특성을 이러한 구조로 살펴보기 위해 黃順元과 金承鉦 두 작가의 작품을 택해 보았다. 이들은 新·舊世代를 각각 代表하는 작가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드시 兩者가 대립적이라거나 平行的일 것이라는 논리적 추리에 의해서 선택된 것은 아니다. 다만 統語論的 分析이 얼마만큼 文體의 특성을 看破해 내는데 有效적질한 方法論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타진해 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밝혀 둔다.

Ⅱ. 本 論

Ⅰ. 修飾의 樣相

文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주어(NP₁), 목적어(NP₂), 서술어(V)가 된다. 이러한 각 요소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수식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分析의 중심으로 삼고, 文章을 分析하고자 한다.

1) [길이 측정]

NP₁과 NP₂에 대한 관형어적 수식요소를 D(=determinative)라 하고 부사어적 요소를 A(=adverbial)라 하기로 하면 NP₁과 NP₂에 대한 수식이 각각 한 성분만으로 되었을 경우를 D₁으로, 두 성분으로 되어 있을 때는 D₂,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면 D₃, 다음으로는 D₄, D₅, D₆……의 순서로 記號化하고, V에 대한 수식의 성분¹⁾ 역시 A₁, A₂, A₃, A₄……의 순서로 記號化할 수 있다. 수식이 없을 때는 각각 D₀, A₀가 된다.

(1) 그의 소중한 친구는 소리없이 떠났다.

(2) 꿈꾸듯한 얼굴이 여윈 내 얼굴을 바라 보았다.

文章 (1)과 (2)의 수식관계를 記號化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분: 본 연구에 있어서의 성분은 반드시 품사론적 단위를 바꾼 것이 아니고, 상황, 의식, 개념, 행동의 명어려를 한 성분으로 본 것이 많다.

文章	主 部		述 部			
	수 식	NP ₁	수 식	NP ₂	수 식	V
(1)	D ₂ (그의 소중한)	친구는	D ₀	()	A ₁ (소리없이)	떠났다
(2)	D ₁ (꿈꾸듯한)	얼굴이	D ₂ (여윈 내)	얼굴을	A ₀	바라 보았다

〈分析 1〉

2) [有無判別]

다음으로 NP₁과 NP₂, V의 유무를 살피기 위해서 NP₁이 생략되지 않았을 경우를 ‘+’로, 생략되었을 경우를 ‘-’, NP₂의 유무를 ‘+’, ‘-’로, V의 유무를 역시 ‘+’, ‘-’로 하여 이를 記號化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文章	主 部		述 部			
	유형	NP ₁	유형	NP ₂	유형	V
(1)	D ₂	+	D ₀	-	A ₁	+
(2)	D ₁	+	D ₂	+	A ₀	-

〈分析 2〉

3) [偏在測定]

위의 문장 (1), (2)와 같은 경우, 主部和 述部 어느 쪽으로 수식이 偏重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左邊으로 偏在해 있을 경우를 L型(=left)으로, 右邊으로 偏在해 있을 경우를 R型(=right), 左右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경우를 B型(=balance)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위의 文章 (1)과 (2)는 각각 主部の D₂와 述部の A₁, 主部の D₁과 述부의 D₂가 平衡을 이루고 있으므로 ‘B’의 판정을 얻게 된다.

文章	NP		VP				판정
	유형	NP ₁	유형	NP ₂	유형	V	
(1)	D ₂	+	D ₀	—	A ₁	+	B
(2)	D ₁	+	D ₂	+	A ₀	—	B

〈分析 3〉

위의 도표에서 문장(1)은 두 성분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고 목적어가 없으며 한 개의 성분으로 된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 主部の 平衡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색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문장 (2)도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해 진다.

(3) 울고 싶었다.

(4) 가느다란 미소의 환한 그의 얼굴이 떠 오른다.

위의 문장 (3)·(4)를 앞에서 설명한 方法으로 記號化하면 다음과 같다.

문장	NP		VP				판정
	유형	NP ₁	유형	NP ₂	유형	V	
(1)	D ₀	—	D ₀	—	D ₀	+	R
(4)	D ₄	+	D ₀	—	D ₀	+	L

〈分析 3〉

(3)의 문장은 述部 쪽으로 무게가 偏在해 있어 'R'의 판정을 얻고, (4)의 문장은 主部 쪽으로 偏在하여 있어 'L'의 판정을 얻는다.

2. 作品의 分析

黃順元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과 金承鉦의 「싸게 사들이기」에서 각각 작품전체를 통하여 50개의 문장만을 뽑아 보았다. 작품 전체에서

처음부터 차례로 50개의 문장을 뽑는다는 것은 文体 전체의 특성을 살피는 데 難點이 있지 않을까 하고 思慮되는 결과, 작품 전체 가운데에서 문장을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뽑아 내어 그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① [대상문]

1) 金承鈺의 「싸게 사들이기」

- (S 1) 토요일 오후
- (S 2) 괜히 마음이 느긋해 진다.
- (S 3) 내일 오후가 되면 이 빛을 잡아야 한다.
- (S 4) 일요일 오후엔 벌 수 없이 초조해지거든.
- (S 5) 그러나 이 토요일 오후를 실컷 이용해야 한다.
- (S 6) 선급한 친구들은 토요일의 강의 시간을 아침부터 빼먹고 프랜을 따라 가 버린다.
- (S 7) 좀 더 성급한 친구들은 학기초의 수강신청할 때 토요일의 강의는 아예 빼어 버리고 신청한다.
- (S 8) 야, 네 노트 좀 빌려 줘.
- (S 9) 지난 시간 게 빠졌어.
- (S 10) 강의실을 나오는데 누가 K의 어깨를 치며 말한다.
- (S 11) 내 글씨 알아보기 힘들 걸.
- (S 12) 그러면서 K는 노트를 빌려 준다.
- (S 13) 토요일 오후에 노트나 빌려가는 파분한 친구도 있긴 있구나.
- (S 14) 노트를 빌린 친구는 바쁘다는 듯이 우쭐거리며 가 버렸다.
- (S 15) 정원에는 초가을 햇벌이 가득하다.
- (S 16) K의 절막열씨가 있는 눈이 햇벌을 당해내지 못하고 가늘어져 버린다.
- (S 17) 햇벌 속에서 찍은 K의 사진은 눈을 한결같이 쨍그리고 있다.
- (S 18) 지나치게 환한 햇벌 속에선 K의 눈은 병신이다.
- (S 19) 초가을 토요일 오후다.
- (S 20) 날씨 더럽게 좋다.
- (S 21) 그런데 한 일이 있어야지
- (S 22) 제기랄, 산악반에나 가입해 놓을 걸.
- (S 23) 그렇지만 산악반의 회원이 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 (S 24) 대부분은 멋을 부리고 싶어서 회원이 된 놈들이다.
- (S 25) 헌 신문지를 쭈서 넣어서라도 될수록 무겁게 해 보인 룩사를 꿰어

- 지고 흰색의 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연골을 조작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해진 워커를 신고 미해군용 작업복 쓰봉을 입고 트랜지스터와 카메라를 어깨에 드리우고 썸 그라스를 끼고
- (S26) 동대문 시장의 흰 옷점에서 사더라도 푸르맹맹한 미해군용 작업복 쓰봉 한 벌에 육칠백원은 주어야 한다.
- (S27) 그건 그렇고 뭐 상관할 것 있나.
- (S28) 도서관엔 가고 싶지가 않고 또 지금쯤은 문을 닫았을 거고.
- (S29) 우선 담배나 한 대 얻어 피우고 보자.
- (S30) 거기서 사기도 하고 거기에 갖다 팔기도 하고
- (S31) 흰 책집 치고는 책 종류가 많아서 K가 잘 드나든다.
- (S32) 집에 돌아와서 젖어낸 페이지를 다시 그 자리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면서 K는 기분이 좋다.
- (S33) 교문밖엔 K와 동류같아 보이는 녀석들이 몇 놈 서서 시시덕거리고 있다.
- (S34) 아스팔트의 차도와 포석을 칸 위에 돌맹이가 한 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듯하기도 하고 틀리먹은 듯하기도 하다.
- (S35) 우선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한 권 꺼내서 곰보옆에 놓인 의자위에 앉아 그 책을 넘기면서 곰보와 잡담을 시작한다.
- (S36) 제기랄 하필이면 그 방면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게 없는 이런 책이 손에 잡혔단.
- (S37) 그것은 로미오의 법률가들에 의해서 흡수되어 기독교의 신부들에 의해서 채용되어 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재건되어……
- (S38) 그 유난히 곰보자국이 많은 교를 실룩거리며 투덜거린다.
- (S39) 자전거부대를 구경하느라고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 (S40) 으흠하고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곰보가 문을 두드린다.
- (S41) 아무래도 팔리지 않은 책을 강매하러 온다.
- (S42) 가짜 커피와 샌치멘탈을 파는 다방에도 두 분은 옆눈을 팔지 않을 것이며.
- (S43) 아마 주말의 자전거 하이킹 부대인 모양이다.
- (S44) 자전거부대를 구경하느라고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 (S45) 잠깐 선명했던 거리가 다시 우울해 진다.
- (S46) 멀리 R의 호느적거리는 뒷 모습이 인파 속으로 끼어들어 가려는 중이다.
- (S47) 내일 당장 아까 몇 페이지 젖어낸 책을 사려와야 겠다.

- (S 47) 점은 제모와 테레리와 곰보의 사촌쯤은 됐을 나.
 (S 49) 곰보가 K를 꺼리하는 듯한 음성으로 여자에게 묻는다.
 (S 50) 루우즈가 벗겨져서 고름이 속에 들어 있는 듯한 입술이 꼬덕거린다.

2) 黃順元의 「학」

- (S 1) 삼팔 접경의 이북쪽 마을은 드높이 개인 하늘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S 2) 주인 없는 집 봉단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S 3) 어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S 4)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찌감치서 길을 비켰다.
 (S 5) 모두 집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S 6)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에 깨어진 자국이라곤 별로 없었다.
 (S 7) 그러나 어쩐지 자기가 어려서 자란 옛 마을은 아닌성 싶었다.
 (S 8) 뒷산 밤나무 기슭에서 성삼이는 반걸음을 멈추었다.
 (S 9) 거기 한 나무에 기어 올랐다.
 (S 10) 뒷속 멀리서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하
 는 흑부리 할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S 11) 그 흑부리 할아버지도 그새 세상을 떠났는가.
 (S 12)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팽팽 묶여 있다.
 (S 13)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라 가까이 가 얼굴을 들여
 다 보았다.
 (S 14) 깜짝 놀랐다.
 (S 15) 바로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S 16) 천태에서 같이 온 치안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나고 물었다.
 (S 17) 성삼이는 거기 봉단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S 18) 덕재를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었다.
 (S 19) 치안대원 청년 하나가 테리고 가기로 했다.
 (S 20) 성삼이가 다 탄 담배 풍조에서 새로 담뱃불을 땀겨 가지고 있었다.
 (S 21) 내가 이자식은 테리구 가지요.
 (S 22)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S 23) 동구밖을 벗어났다.
 (S 24) 성삼이는 담배만 연거푸 피웠다.
 (S 25) 담배맛은 몰랐다.
 (S 26)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하였다.
 (S 27) 그러다가 문득 이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 (S28) 어러서 어른들 몰래 담뚝통이에서 호박잎 담배를 피워 꼈었다.
- (S29) 그러나 오늘 이깃눔에게 담배를 권하다니 될 말이나
- (S30)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때였다.
- (S31) 별안간 흑부리 할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 (S32) 나무에서 미끌어져 떨어졌다.
- (S33) 엉덩이에 밤송이가 찔렸다.
- (S34) 그러나 그냥 달렸다.
- (S35) 흑부리 할아버지가 못 따라올 만큼 멀리 가서야 덕재에게 엉덩이를 돌려댔다.
- (S36) 밤가시 빼 내는 게 더 바꿈거리고 아왔다.
- (S37) 절로 눈물이 쥔끔거리졌다.
- (S38) 덕재가 불쑥 자기밤을 한층 꺼내어 성삼이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 (S39) 성삼이는 새로 불을 땡겨온 담배를 집어 내던졌다.
- (S40) 그리고는 이 덕재 자식운 데리고 가는 동안에는 다시 담배는 붙여 물지 않으리라 마음 먹는다.
- (S41) 고갯길에 다다랐다.
- (S42) 이 고개는 해방 전전해 성삼이가 삼팔 이남 친배 부근으로 이사가 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 꼰 베터 넘나들던 고개다.
- (S43)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 (S44) 사람을 몇이나 죽였어?
- (S45)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 본다.
- (S46)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 언저리가 싹둑 거리디니
- (S47)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 (S48)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 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 (S49) 막혔던 무엇이 풀려내리는 것만 같은
- (S50)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걸기만 하다.

②【分 析】

피수식어에 대한 수식어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분석과 각 요소(NP₁, NP₂, V)의 유무를 검토하는 ‘有無判別’과 다음으로 각 문장의 左邊과 右邊의 무게를 측정하는 ‘偏在測定’의 3가지 分析을 각각 第一分析, 第二分析, 第三分析으로 나누고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

타난다.

1) 金承鉉

文章	主 部		述 部				判定
	유형	NP ₁	유형	NP ₂	유형	V	
S 1	D ₀	—	D ₀	—	A ₀	+	R
S 2	D ₀	+	D ₀	—	A ₁	+	R
S 3	D ₀	—	D ₁	+	A ₁	+	R
S 4	D ₀	—	D ₀	—	A ₂	+	R
S 5	D ₀	—	D ₁	+	A ₁	+	R
S 6	D ₁	+	D ₁	+	A ₁	+	R
			D ₀	+	A ₀	+	
S 7	D ₂	+	D ₁	+	A ₁	+	R
			D ₁	+			
			D ₁	+			
S 8	D ₀	—	D ₁	+	A ₁	+	R
S 9	D ₁	+	D ₀	—	A ₀	+	B
S10	D ₁	+	D ₁	+	A ₀	+	B
S11	D ₀	—	D ₁	+	A ₀	+	B
S12	D ₁	+	D ₀	+	A ₀	+	B
S13	D ₂	+	D ₀	—	A ₀	+	L
S14	D ₁	+	D ₀	—	A ₁	+	B
S15	D ₂	+	D ₀	—	A ₀	+	L

S 16	D ₂	+	D ₀	+	A ₀	+	B
S 17	D ₄	+	D ₀	+	A ₁	+	B
S 18	D ₅	+	D ₀	—	A ₀	+	L
S 19	D ₀	—	D ₀	—	A ₂	+	R
S 20	D ₀	+	D ₀	—	A ₁	+	B
S 21	D ₂	+	D ₀	—	A ₀	+	B
S 22	D ₀	—	D ₀	—	A ₂	+	R
S 23	D ₁	+	D ₀	—	A ₀	+	B
	D ₀	+	D ₀	—	A ₁	+	
S 24	D ₀	+	D ₀	—	A ₂	+	R
S 25	D ₀	—	D ₅	+	A ₀	+	R
			D ₁	+	A ₀	+	
			D ₆	+	A ₀	+	
			D ₂	+	A ₀	+	
			D ₀	+	A ₁	+	
			D ₀	+	A ₀	+	
S 26	D ₀	—	D ₇	+	A ₀	+	R
S 27	D ₁	+	D ₀	—	A ₀	+	B
	D ₁	+	D ₀	—	A ₀	+	
S 28	D ₀	—	D ₀	—	A ₂	+	R
			D ₀	+	A ₁	+	

S 29	D ₀	—	D ₁	+	A ₂	+	R
S 30	D ₀	—	D ₀	—	A ₁	+	R
					A ₁	+	
S 31	D ₂	+	D ₀	—	A ₁	+	B
S 32	D ₀	+	D ₂	+	A ₂	+	R
			D ₀	—	A ₀	+	
S 33	D ₂	+	D ₁	+	A ₁	+	B
S 34	D ₄	+	D ₁	+	A ₀	+	B
			D ₁	+	A ₀	+	
S 35	D ₀	—	D ₄	+	A ₀	+	R
			D ₂	+	A ₁	+	
			D ₁	+	A ₀	+	
			D ₁	+	A ₀	+	
S 36	D ₄	+	D ₄	—	A ₁	+	L
S 37	D ₀	+	D ₀	—	A ₂	+	R
					A ₂	+	
S 38	D ₀	—	D ₄	+	A ₀	+	R
S 39	D ₄	+	D ₀	—	A ₁	+	B
S 40	D ₄	+	D ₀	+	A ₀	+	L
S 41	D ₀	—	D ₅	+	A ₀	+	R
S 42	D ₄	+	D ₀	+	A ₁	+	B
S 43	D ₀	—	D ₀	—	A ₂	+	R
S 44	D ₃	+	D ₀	—	A ₁	+	B
S 45	D ₂	+	D ₀	—	A ₁	+	B
S 46	D ₄	+	D ₀	—	A ₂	+	B

S 47	D ₀	—	D ₄	+	A ₀	+	R
S 48	D ₆	+	D ₀	—	A ₀	—	L
S 49	D ₀	+	D ₀	+	A ₃	+	R
S 50	D ₆	+	D ₀	—	A ₀	+	L

2) 黃順元

文章	主 部		述 部				判定
	유형	NP ₁	유형	NP ₂	유형	V	
S 1	D ₂	+	D ⁰	—	A ₄	+	B
S 2	D ₃	+	D ₁	+	A ₀	+	B
S 3	D ₂	+	D ₀	—	A ₂	+	B
S 4	D ₀	+	D ₀	+	A ₄	+	R
S 5	D ₀	+	D ₀	—	A ₁	+	R
S 6	D ₃	+	D ₀	—	A ₁	+	B
S 7	D ₆	+	D ₀	—	A ₀	+	L
S 8	D ₂	+	D ₀	+	A ₀	+	B
S 9	D ₀	—	D ₀	—	A ₂	+	R
S 10	D ₀	+	D ₀	—	A ₀	+	L
S 11	D ₁	+	D ₀	+	A ₁	+	L

S 12	D ₆	+	D ₀	+	A ₁	+	L
S 13	D ₀	—	D ₀	—	A ₆	+	R
			D ₀	+	A ₁	+	
S 14	D ₀	—	D ₀	—	A ₁	+	R
S 15	D ₄	+	D ₀	—	A ₀	—	L
S 16	D ₀	—	D ₃	+	A ₀	—	R
S 17	D ₀	—	D ₀	—	A ₂	+	R
			D ₀	+	A ₀	+	
S 18	D ₀	—	D ₀	+	A ₁	+	R
S 19	D ₁	+	D ₀	—	A ₀	+	B
S 20	D ₀	+	D ₆	+	A ₀	+	R
S 21	D ₀	+	D ₀	+	A ₀	+	B
S 22	D ₀	+	D ₀	+	A ₂	+	R
S 23	D ₀	—	D ₀	+	A ₀	+	R
S 24	D ₀	+	D ₀	+	A ₁	+	R
S 25	D ₀	—	D ₀	+	A ₀	+	R
S 26	D ₀	—	D ₁	+	A ₁	+	R
S 27	D ₆	+	D ₀	—	A ₀	+	L
S 28	D ₀	—	D ₃	+	A ₀	+	R
S 29	D ₀	—	D ₃	+	A ₀	+	L

S 30	D ₀	+	D ₀	-	A ₁	+	R
S 31	D ₂	+	D ₀	-	A ₀	+	L
S 32	D ₀	-	D ₀	-	A ₁	+	R
S 33	D ₀	+	D ₀	-	A ₁	+	B
S 34	D ₀	-	D ₀	-	A ₁	+	R
S 35	D ₀	-	D ₃	+	A ₁	+	R
S 36	D ₁	+	D ₀	-	A ₂	+	B
S 37	D ₀	+	D ₀	-	A ₁	+	B
S 38	D ₀	+	D ₀	+	A ₂	+	R
					A ₃	+	R
S 39	D ₀	+	D ₃	+	A ₀	+	R
S 40	D ₀	-	D ₀	-	A ₇	+	R
S 41	D ₀	-	D ₀	-	A ₁	+	R
S 42	D ₁	+	D ₀	-	A ₇	+	R
S 43	D ₀	+	D ₃	+	A ₀	+	R
S 44	D ₀	-	D ₀	+	A ₁	+	R
S 45	D ₀	-	D ₀	+	A ₀	+	R
S 46	D ₅	+	D ₀	-	A ₀	+	L
S 47	D ₀	+	D ₀	+	A ₁	+	R

S 48	D ₃	+	D ₀	+	A ₀	+	B
S 49	D ₁	+	D ₀	-	A ₁	+	B
S 50	D ₀	+	D ₀	-	A ₁	+	B

3) 비교 측정

(1) 길이 측정

金承鉦과 黃順元의 文章에서 NP₁과 NP₂, V를 수식하는 성분의 길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본 것을 集計하여 兩者를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각 유형별로 集計한 수식어의 숫자는 50개의 전체 문장을 통하여 각 하나의 문장 속에서의 NP₁, NP₂, V의 숫자에 비준하게 된다.

[金承鉦]

主 部		述 部			
NP ₁		NP ₂		V	
유 형	集計	유 형	集計	유 형	集計
D ₀	25	D ₀	40	A ₀	32
D ₁	8	D ₁	13	A ₁	19
D ₂	6	D ₂	3	A ₂	10
D ₃	4	D ₃	0	A ₃	2
D ₄	5	D ₄	3	A ₄	0
D ₅	3	D ₅	3	A ₅	0
D ₆	1	D ₆	0	A ₆	0
D ₇	0	D ₇	1	A ₇	0
計	52	計	76	計	63

〔黃順元〕

主 部		述 部			
NP ₁		NP ₂		V	
유 형	集計	유 형	集計	유 형	集計
D ₀	32	D ₀	42	A ₀	21
D ₁	5	D ₁	2	A ₁	18
D ₂	5	D ₂	0	A ₂	8
D ₃	5	D ₃	6	A ₃	1
D ₄	0	D ₄	0	A ₄	2
D ₅	3	D ₅	1	A ₅	0
D ₆	1	D ₆	0	A ₆	1
D ₇	0	D ₇	0	A ₇	2
D ₈	0	D ₈	0	A ₈	0
D ₉	1	D ₉	0	A ₉	0
計	50	計	51	計	54

金承鉉의 NP₁에 대한 D₀가 25개임에 비해 黃順元의 D₀는 32, 金承鉉의 D₃가 4개임에 비해 黃順元은 2개뿐, 金承鉉의 D₄가 5개임에 비해 黃順元은 1개밖에 없다.

이런 현상으로 볼 때, 대체로 金承鉉은 'NP₁'에 대한 수식을 길게 늘어 놓고 있으며, 黃順元은 수식을 짧게 하거나 긴 수식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띤 文体를 가진다.

'NP₂'에 대해서 黃順元은 거의 수식을 하지 않으나 金承鉉의 경우에는

대체로 수식이 많다.

반면에 金承鉉은 동사에 대한 수식이 길지 않으나 黃順元은 동사에 대한 수식이 비교적 길게 構成되어 있다. 특히 黃順元에 있어 A₆가 1개, A₇가 2개나 된다는 사실은 'V'에 대한 수식의 장황함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NP₁', 'NP₂'를 통털어서 볼 때 대체로 金承鉉은 'NP'에 대한 수식이 길고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金承鉉이 문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나 '객체'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이전에 '어떠한 행위자'가 행동하였느냐를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文章心理에서 基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黃順元의 경우에는 '행위자' 이전에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한 사실로 파악하고 있다는 文章心理을 유추해 낼 수 있다.

(2) 有無判別

다음으로 兩者의 文章에서 NP₁, NP₂, V의 有無를 측정해 내기 위한 有無判別의 측정을 集計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NP ₁ 없음	NP ₂ 없음	V 없음
金 承 鉉	18	30	1
黃 順 元	17	25	2

'有無判別'의 第2分析에서는 金承鉉과 黃順元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兩者가 모두 NP₁, NP₂의 '없음'이 많고 V의 '없음'은 극히 소량이다. 따라서 이 分析過程에서는 兩者의 文体 特性을 통하여 우리 언어의 특성을 考察해 볼 수 있다. 우리말은 述語中心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이나 '없음'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결과

가 될 수 있겠다.

(3) 偏在 測定

文章의 무게가 어느 邊으로 偏重하느냐에 따라 R型, L型, B型으로 나누어 본 第3分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R 型	L 型	B 型	計
金 承 鉉	22	7	21	50
黃 順 元	28	9	13	50

第1分析의 결과 나타났던 것과 같이 金承鉉이 NP₁에 대한 수식이 많은 원인으로 하여 R型의 숫자가 黃順元에 비해 월등히 적게 나타난다.

金承鉉의 B型이 黃順元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되는 것은 金承鉉의 文章이 安定과 平定을 유지하는 主述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示唆한다. NP₁에 대한 수식과 NP₂에 대한 수식이 主部와 述部에서 安配되에 있는 까닭에 平衡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黃順元의 文章에는 'V'에 대한 수식이 깊으로 해서 平衡을 상실하는 文章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II. 結 論

文章을 이루고 있는 중심요소를 NP₁(주어)과 NP₂(목적어), V(서술어)로 파악하고 이런 각 요소를 수식하는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유형으로 수식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分析하여 文體의 特性을 찾고자 함이 本 研究의 중심이었다.

文章 가운데서 NP₁과 NP₂, V에 대한 수식의 성분이 길고 짧은 것에 기준을 두고, '길이 측정'의 '第1分析'을 하고, 다음으로 NP₁, NP₂, V의 있고 없음을 살펴보는 '有無判別'을 '第2分析'으로, 主·述部の 어느

쪽으로 수식이 偏在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偏在測定’의 ‘第3分析’을 차례로 하여 보았다. NP₁과 NP₂에 대한 관형어적 수식 성분을 ‘D(=determinative)’라 하고 V에 대한 수식성분을 ‘A’ (=adverbial)로 나타내어 각각 성분의 길이에 따라 D₀, D₁, D₂, D₃, D₄……D_n, A₀, A₁, A₂, A₃, ……A_n의 순서로 수식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金承鉦은 NP에 대한 수식이 길고 장황함에 비해 黃順元은 V에 대한 수식이 길고 많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金承鉦이 문장에 있어서 ‘주체’나 ‘객체’를 소중하게 파악하여 ‘어떠한 행위자’가 행위를 하였느냐를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시키는 文章心理에서 基因하는 것이며, 黃順元이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상황’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중요한 사실로 파악하고 있다는 문제를 看破하게 된다.

第2分析에서는 兩者의 文體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말의 특징이 述語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결과가 된다.

第3分析에서는 黃順元의 文章에 ‘R型’이 많아 述語中心의 文이 되고, 金承鉦의 文章에 ‘B型’이 많아 主・述이 平衡을 이루고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第1分析과 연관되는 分析이 된다. 金承鉦은 NP₁과 NP₂에 대한 수식이 많음으로 해서 文章은 平衡을 이루게 되고, 黃順元은 V에 대한 수식이 길고 많음으로 해서 VP쪽으로 偏重하는 문장을 많이 가지게 된다.

統語論的으로 文章을 分析하여 文體의 特性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본 攷에서의 試圖였으나 얼마만큼 金承鉦・黃順元 兩者의 文體特性이 精確하게 看破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 方法論에 입각한 兩者의 文章을 더 많이 分析해 보고 研究하는 試行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지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